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62 호 현대불교
2023년 12월 6일(음 10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내가 묵묵히 한 발짝 떼어 놓을 때 그게 법이 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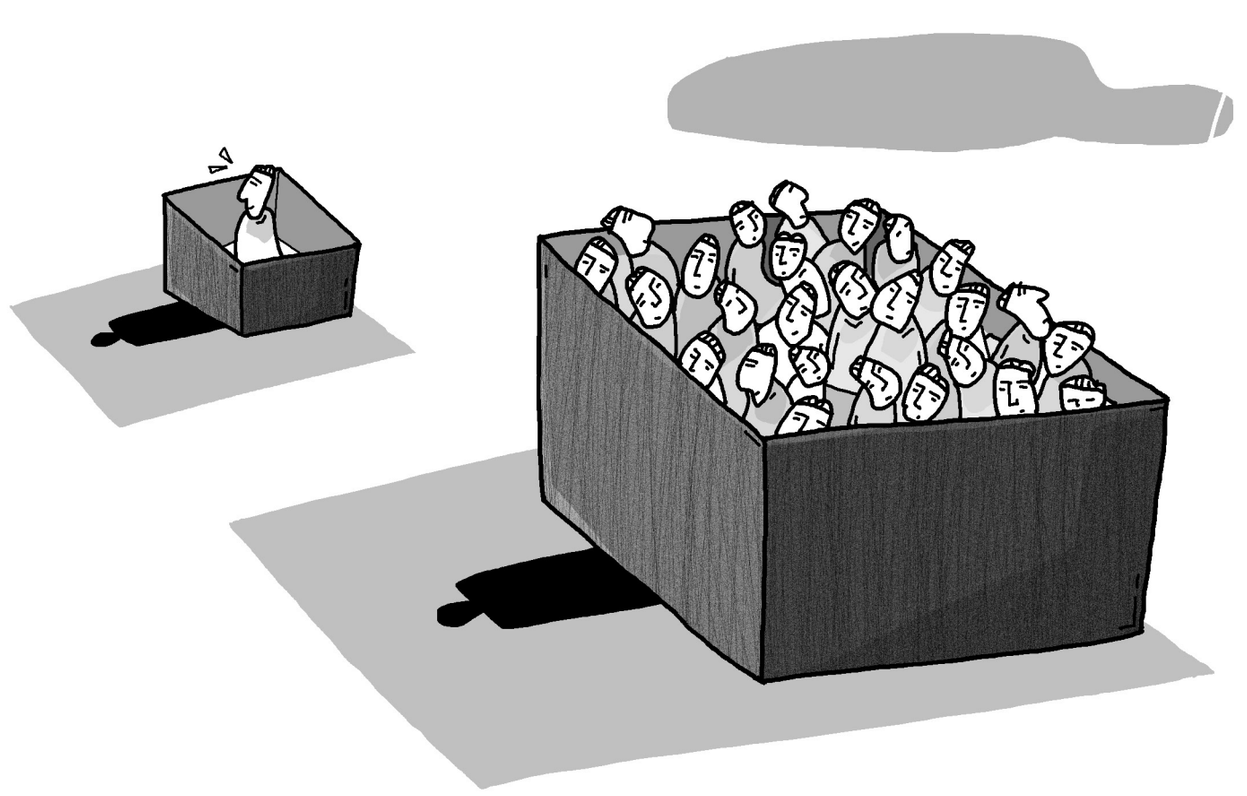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시죠? 그 이름만 들어도 자성 삼보라는 그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과, 움죽거리지 않는다 하면은 또 이상스럽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레가 돌아가도 중심이 끼워진 주 중심 봉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힘만 배려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힘만 배려해 준다 이겁니다. 움죽거리지는 않는다. 수레가 돌아갈 뿐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근본도 부동자세한 그 뜻으로서의 힘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배출하는 반면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항상 찰나찰나 화하면서 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거, 그 움죽거리지 않는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 자(自)의 근본에서 마음을 내는 것이 법이니까요. 마음을 내는 것이 법입니다. 자성 삼보라는 것이 불법승, 그리고 승은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움죽거린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 자성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정혜는 어디에 붙어 돌아가는가. 자성 삼보에 귀의했으면 바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들이고 내는 행을 어떻게 해야만이 계라고 할 수 있을까.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들이고 내는 것도 네놈이고, 움죽거리는 것도 네놈이요, 보는 것도 네놈이요, 듣는 것도 네놈이요, 가고 오는 것도 네놈이요, 똥 싸고 밥 먹는 것도 네놈이요, 자는 것도 네놈이요,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네놈이 하는 거다. 나무가 바로 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 나무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움죽거리는 게 전체가 다 그러하니 모든 거를 즉 정에다가 모아야 진짜 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에도 그렇고 '계정혜' 할 때도 그렇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누가 되지 않게 첫째는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 도량에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은사나 사제 사형한테 또 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스님네들은 물론이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누가 되게 한다면 가정이 다 누가 되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누가 되게 한다면 가정이 전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러하니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잘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내 탓으로 돌려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려라.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려라. 왜냐하면 내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입니다. 내 탓으로 돌려라 하니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내 탓으로 돌리지."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려서 깊은 마음속에다, 근본에다가 놔서 그게 입력이 돼서, 다시 입력이 된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법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입이 무거워지고, 말이 적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안으로 매사를 굴려서 거기다 맡기기 때문에 입력이 돼 가지고 다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 되니까 그대로 걸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계를 거쳐서 물질계로 나오니까 그것은 걸림이 없지만, 물질계에서 물질계로 그냥 나간다면 그건 항상 걸리고 사고가 생기고 이탈을 하게 되고 망종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하니 온통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대치를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 하나를 잘 해서 안으로 굴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법신이 되신다면 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이심전심으로써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속에도 천차만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해서 창조됐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몸속에 바로 지나간 세월의 자기 모습들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니만큼 그 모든 물질적인 생물들이 나 아님이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법(空法)에…, "보이지 않는 공법에" 이러는 건 여러분이 육안으론 볼 수 없는 이런 세계 속에서 항상 그게 통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하지만 비밀은 없죠. 물질세계에서는 그 비밀이 있다고 하지만 무의 세계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그 자기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향에 의해서 모두 첫째,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바깥에서 용도에 따라 들어오는 거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두 자식 부모지간에 일어나는 거나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화목해지고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거기다 넣질 않고 그냥 입으로 "어유, 저놈의…, 차라리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이러죠? "어유, 저놈의 자식! 저거 차라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말이 선선하게 나가죠.

이거는 과거로부터 쭉 인연을 맺어서 온 모두 한 가족인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럭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두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바깥으로 물질세계로 나와서 둥글게 응용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모두 그게 법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 줄 거고, 여러분 길이 험악하더라도 험악지 않게 되고, 어떠한 게 걸림이 오더라도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하신다면 정향이 됩니다. 한데 모아서 심봉을 완전히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어디 내세워도 흔들리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첫째, 계를 안으로 잘 지켜야만 되지 내가 바깥으로 아이고,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오계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으로 떠돌게 된다면 이거는 정에 들지를 않아요. 이 중심이, 심봉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들이고 내는 데에 손상이 오죠.

이 뿌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데에 어떤 게 닥치면, '아이고!' 하고 겁이 턱턱 나고 그냥 안절부절을 못 하게 되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자식들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부모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갈팡질팡을 하죠.

그러면 이 주인공 찾는 것도 말입니다, 그냥 아리송하게 되죠. "그거 불러 봤던들 그렇더라." 이러구요. 하 참 내, 기가 막혀서. 하하하. 그러니 말입니다, 이게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완벽하게 서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야 들이고 내는 대로 입력이 되고, 입력이 되면은 바로 즉시 현실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이게 돌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다 굴려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실천을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버둥이 치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거를 대치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아리송한 거죠.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이 우주를 삼킬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삼천대천세계를 삼킬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발심에서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죠.

☞ 26면으로 계속

